참 스승님 류달영

박 영 호 (다석사상연구회 연구위원)

류달영 선생님께서 세우신 성천아카데미에서 多夕思想 강의를 하게 되면서부터 20대부터 존경한 선생님을 10여 년 동안 자주 뵈올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주 대할 때마다 경탄할 지혜와 기발한 해학이 넘치는 말씀을 듣느라 시간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제 그 인자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없기에 땅이 꺼진 듯 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서 뵈올 수 있기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산 이는 날로 친하지만, 죽은 이는 날로 성기어 간다고 하지만, 선생님과 나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석 류영모 선생님과 내가 그러하였듯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이 한 얼생명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용에 몸생명은 분명하나 날로 없어지고, 얼생명은 숨기었으나 날로 뚜렷하다(小人之道的然而日亡 君子之道闇然而日章)고 하였습니다.

1. 죽음을 이긴 이

병상을 찾아간 이 사람에게 류달영이 "어서 떠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큰 고통 없이 갔으면 해요."라고 말하였다. 남의 죽음이 내 곳불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지만, 류달영은 자신의 죽음을 남의 곳불처럼 가볍게 말하였다. 20여년 앞서 류영모가 "안 와 봐도 짐작되지 않아요. 자주 찾아올 것 없어요. 이 길 저 길 갈릴 때나 오시오"라고 하던 일이 상기되었다. 두 버들(柳) 스승은 참으로 죽음을 이긴 높은 인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들은 안 죽을 사람처럼 살다가 막상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면 평상심을 잃고 소란을 피우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안 죽는데 자기 혼자만 억울하게 죽기라도 하는 듯이 분노하고 비통해 한다. 하염없이 혼자 눈물을 쏟는 이는 점잖은 편이고 소리치며 대성통곡을 한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인격이 완숙한 사람은 죽음을 기꺼이 자연스럽게 받아드린다. 그 모습을 석가 예수에게 본다. 석가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 나서 죽지 않는 이는 없다.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나는 이제 다함이 없는 깨끗한 곳으로 간다"(『대열반경』)고 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느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여라"(요한복음)고 하였다. 죽음을 기쁨으로 맞으며 김소월의 시구처럼 숨지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 이가 톨스토이와 간디였다. 그리고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모름지기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은 없다. 죽는 것이야말로 축하할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류영모, 『다석어록』)

류달영은 누구 못지않게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다. 일본의 제1고 학생인 후치무라 미사오(藤村操)가 인생이란 불가지해不可知解라면서 명승지 화엄폭포에 몸을 날려 자살하였다. 그 때 남긴 '암두지감岩頭之感'이란 글이 유명하였는데 류달영은 그것을 외웠다. 또 류달영은 사랑하는 아들을 앞서 보내는 참척慘慽을 겪어야만 했다. "자기의 반신半身처럼 사랑하는 이의 관 앞에 앉아 밤을 새워 본 경험이 있는 이는 누구나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교사라는 것을 통절하게 느낄 것이다. 무릇 참된 깊은 사상이나 인생관은 죽음에 직면해서 나온 것이다. 죽음을 생각해 보지 못한 인격이나 사상은 비누거품처럼 경박하고 불안정하다. 우리는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생명의 존엄을 가장 엄숙하게 느낀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류달영은 몸뚱이의 제나(自我)가 거짓나인 것을 알고 참나인 얼나를 깨달았다. 그리하여 몸나의 죽음을 맞이하여도 태

▲ 다석 유영모 선생의 구기동 자택 근처에서

연자약할 수 있었다. 류달영은 사람이 간구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인 참나(얼나)임을 알았다.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과제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곧 참나(眞我)의 발견이라고 할 것이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류영모가 말하기를 "제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아직 남았다면 마음의 불안을 못 면한다. 나는 속이 없다고 하리만큼 작아져야 한다. 나가 아주 없어져야 한다. 나가 없어진 그 속의 속의 나가 참나일 것이다"(류영모, 『다석어록』)라고 하였다. 류달영이 살아서도 시름없고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으니 제나로 죽고 얼나로 솟난 때문이다. 장자莊子의 말에 "저 하느님께서 나의 몸에 내 얼을 실어주고서 나를 힘써 살라, 나를 늙어 평안하라, 내가 죽어 쉬라. 내 삶을 잘해주었으므로 이에 내 죽음도 잘해 줄 것이다"(『장자』 대종사편)라는 그대로의 마음이었다.

예수는 멸망의 생명인 제나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나로 솟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요한 3:8) 그러나 얼나로 솟난 사람은 그 삶의 태도로 얼나로 솟난 사실이 잘 드러나게 되어있다.

류달영은 다른 성자들처럼 짐승인 제나로 죽었기에 짐승의 본능인 탐·진·치貪瞋痴의 수성獸性을 버렸다. 그리하여 탐욕을 버리고 베풀었으며 진에瞋恚를 버려 너그러웠으며 음욕을 버려 청정하였다. 이것이 공자孔子가 말한 극기복례克己復禮이다. 짐승으로는 죽고 하느님아들로 솟나 하느님과 부자의 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류달영이 진리를 체득한 말을 들어본다. "내가 (몸으로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일 것이다. 내가 (얼로는) 하느님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인생의 길은 짐승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비통해 하고 하느님과 같은 나를 발견하고서 환호하면서 걸어가는 여정이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극기克己하여 하느님아들인 얼나로 솟난 이는 혈연의 가정을 벗어난다. 그것이 예수 석가가 보여 준 삶이다. 가정에 머물되 가족에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 이가 류영모이다. 류영모는 스스로 말하기를 신출가身出家는 못했으나 심출가心出家는 하였다고 하였다. 류달영도 류영모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것을 증언해 주는 류달영의 말이 있다. "젊어서 집(왕궁)을 탈출한 석가는 생각할수록 통쾌하고 위대하다. 작건 크건 간에 껍질 속에서 탈출하는 일은 위대하게 사는 이의 필연의 과정이다. 나를 둘러싼 껍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비약의 시작이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그러면서도 가족을 버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돌보았다. 13년 동안이나 치매로 병상에 누

워있는 아내를 극진히 돌보아 이웃에서 그 모습을 보아온 시인 구상具常은 류달영을 열부烈夫라 하였다. "오늘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는 하느님이 나에게 남편노릇을 성실하게 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류달영, 『만남의 인생』) 류달영이 가족밖에 모르는 가족지상주의자였다면 성천문화재단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극기하여 얼나로 솟난 이는 나라를 사랑하되 나라를 초월한다. 그리하여 예수처럼 하느님 나라 석가처럼 니르바나님 나라에 이른다. 예수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요한 18:37)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석가 노자를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로 보기도 한다. "예수와 석가를 아나키스트로 재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박홍규, 『아나키즘이야기』) 그러나 예수와 석가는 무신론자들인 고드윈, 바쿠닌, 크로포트킨과 같은 아나키스트들과는 다르다.

류달영의 몸에 흐르는 피 속에는 적혈구 대신에 나라사랑이, 백혈구 대신에 진리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새농민신문에서 건국이후 이 나라에서 농촌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10사람을 뽑았는데, 첫째가 박정희이고 둘째가 류달영이었다. 류달영이 농학을 택한 것은 그 당시 이 나라 국민의 8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을 잘 살게 하여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류달영의 저서 『새 역사를 위하여』에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류달영은 나라의 권좌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 번 입각교섭을 받았으나 고사하였고 대통령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오불관언이었다.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직급은 국무총리급이었으나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는 민간운동으로 하는 조건으로 수락하였다. 뒤의 새마을운동과는 사뭇 달랐다.

류달영이 이렇게 말하였다. "위(높은) 자리에 앉기를 진정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윗자리에 모시도록 하라.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아무도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고 국회의원에도 출마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가장 수준 높은 나라일 것이다. 돈, 지위, 권력, 명예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의 인생 이것이 최고 경지의 삶이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끝으로 극기하여 얼로 솟난 이는 우주만물을 투시하여 없이 본다. 그럴 때 빔(허공)이시며 얼(성령)인 하느님을 직감하게 된다. 우주 만물이란 영안靈眼에 씌어진 콩깍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때 쇠붙이가 자석을 만나면 자력磁力을 얻게 되듯이 내 맘이 거룩한 기운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하느님 생명인 얼(성령)이 말씀과 사랑으로 내 맘속에 샘솟는다. "모든 유형有形적인 사물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쓰러지는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나 참으로 오래 살아남는 것들은 모두 무형적인 것이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이렇게 하느님을 체득하면 내 집도 이 우주도 그대로 교회요 사찰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제도적인 종교란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거룩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 예수가 유대교에 머무르지 않고 석가가 브라만교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류영모와 류달영이 기성종교를 떠나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류달영은 성천아카데미에서 여러 종교의 경전을 강의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어느 종교에 이름을 얹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리만큼 예수를 존경하였고, 2백 개에 가까운 불상을 모으리만큼 석가를 흠모하였다. 논어의 글귀를 곧잘 외우도록 공자孔子를 친애하였다.

류달영의 종교관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교는 가장 열심인 신도들에 의해 일그러져 왔다.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다. 소금이 달지 않고 언제나 짜듯이 진리의 사람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이단자라는 낙인을 면할 수 없었다. 이단자의 낙인을 두려워하는 이는 진리와 동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다. 내가 직업 종교가들을 꺼리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와 석가를 자기들의 밥벌이 감으로 삼기 때문이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2. 오복五福을 이룬 이

옛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두 번 다시없는 이 삶을 이왕이면 성공적으로 살아야지 실패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 사람은 이 땅위에 사람이 나타나 인류사를 엮어 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이는 예수 석가라고 생각한다. 삶의 목적은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나는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옛 사람들은 오복五福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그 오복五福은 중국의 고전인 서경書經안에서 주서周書 홍범洪範편에 나온다. 1. 수壽 2. 부富 3. 강녕康寧 4. 유호덕攸好德 5. 고종명考終命의 다섯 가지이다. 속설 오복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설일 뿐이다. 류달영의 일생을 이 오복의 기준에서 평가해 보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수복壽福이다. 한자 壽자는 늙은이가 오래 사는 것을 나타내는 회의會意문자이다. 목숨은 무엇보다도 오래 살아야 목숨이라 하겠다. 그래서 목숨 수자는 아예 오래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숨을 길게 살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이다. 세계적인 레슬러 역도산力道山이 죽음의 공포증에 시달렸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그래서 노자老子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목숨(壽)이다(死而不亡者壽)"(『노자』 33장)라고 하였다. 죽어도 죽지 않는 목숨(壽)을 예수와 석가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수복壽福을 누린 것이다.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 얼나를 깨달은 것이었다. "내 말을 듣고서 또 내게 보내신 이(얼나)를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음(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제나)에서 영원한 생명(얼나)으로 옮겼느니라."(요한 5:24) 그리하여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맘속에 얼나를 모시면 몸나의 일찍 죽고 오래 살고는 다를 게 없다(存心養性殀壽不貳)"(『맹자』 진심상편)고 하였다. 류달영은 몸나로도 93살을 살았고 얼나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참으로 수복을 누렸다고 할 것이다. 류달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불멸(얼나)을 믿는 정신만이 불멸(얼나)과 함께 있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둘째가 부복富福이다. 부富자는 집안에 재물을 가득히 쌓아놓은 것이다. 재물을 집밖에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느님이 내려다보는 것이 복福이란 글자이다. 모은 부富가 복福이 되려면 모은 재물을 흩어서 베풀어야 한다. 블랙홀처럼 탐욕만 부리는 사람처럼 빈자貧者가 없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처럼 부자는 없다. 노자老子는 "넉넉한 줄 아는 이가 가멸하다(知足者富)"(『노자』33장)라고 하였다. 세상을 다 잡아먹어야겠다는 알렉산더 같은 빈궁한 이가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디오게네스 같은 부자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노자老子가 한 마디 하기를 "넉넉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노자』 44장)고 하였다.

참 부富는 정신적인 진리가 값진 부富임을 알아야 한다. 소로우는 "물질적인 부富 특히 집이나 땅을 사 모으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우리 사람의 자산資産이자 부동산은 우리가 애써 생각해서 얻은 사고思考의 총량이다"(소로우, 『소로우의 일기』)라고 말하였다.

류달영은 정신적인 부富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하였다. "비극은 결국 사상과 이념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염려 없는 줄로 알지만 풍부한 물질 속에 빈곤한 사상은 언제나 큰 비극을 가져온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남에게 줄 줄을 안다. 류영모는 분명히 말하였다. "죽음이란 줄 것을 다 주고 꼭 마감을 하고 끝내는 것이다. 줄 것을 다 주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다. 돈 있는 사람은 모은 돈을 주고,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아는 지식을 주고, 그래서 다 주면 끝을 꽉 맺는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모을 것을 모으고, 알 것을 알아서, 이웃에게 다 주고 가려고 나왔다."(류영모, 『다석어록』)

류달영은 물질적인 부富도 정신적인 부富도 아낌없이 베풀고 떠나는 본보기를 보였다. 석가에 대한 10가지 호칭 가운데 여래如來가 있고 선서善逝가 있다. 잘 와서 잘 갔다는 뜻이다. 류달영의 일생을 한 마디로 나타낸다면 '잘 와서 잘 간 이' 라고 할 것이다.

셋째가 강녕康寧이다. 강康자는 벼껍질을 나타낸 회의會意문자이다. 벼껍질은 속에 쌀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주 튼튼하다. 쌀은 벌레가 먹어도 벼는 벌레가 먹지 못한다. 벼껍질 때문이다. 몸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벼껍질처럼 튼튼해야 한다. 류영모는 사람이 몸이 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몸이 원수지만, 몸이 성하지 못하면 이중으로 갇히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이 성하면 다른 욕심은 다 버리라고 하였다.

녕寧은 맘이 평안한 것이다. 이 나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맘이 평안해진다. 그리고 나면 이 못생긴 나가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자기 긍정만 하게 되면 이기주의자가 되고 자기부정만 하면 염세주의자가 된다. 내 생

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임을 알고 하느님께 돌려드린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좇아 살기로 해야 한다. 부정 뒤에 긍정이다. 이것을 류영모는 '맘놓이'라고 하였다.

류달영은 일제하에 성서조선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도 하였고 한국전쟁 때 사선死線을 넘는 피란살이를 하였으나 '몸성히 맘놓이'의 강녕을 놓치지 아니하였다. 한 때 당뇨기가 있고 참척을 겪기도 하였으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진리파지의 뜻을 불태웠다. 그 이상의 강녕함이 어디 있겠는가?

넷째가 유호덕攸好德이다. 이것은 오래도록 한결같이 속알(德)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공자孔子는 "하느님께서 내게 속알(참나)을 낳았다(天生德於予)"고 말하였다. 호덕好德은 내 맘속에 온 하느님의 뜻 받들기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의 속에 있는 속알(얼나)도 알아주게 된다. 공자孔子가 "내 아직 여자를 좋아하듯이 속알(얼나)을 좋아하는 이를 보지 못했다.(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논어』 위령공편)고 하였다. 공자의 덕德은 덕사德師일 것이다. 공자孔子를 알아주지 못한 것은 제 속에 속알(얼나)을 깨달은 이가 없었던 것이다.

류달영은 제 맘속에 얼나(神性)가 있는 것을 깨달은 이다. 그래서 남의 속에 있는 속알(德)을 잘 알아주었다. 류달영은 류영모가 성자인 덕사임을 머뭇거리지 않고 선언하였다. 류달영의 저서 『만남의 인생』을 보면 류달영이 얼마나 호덕好德 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다. 류달영이 흠모하여 직접 만난 덕사德師의 면모를 보면 도산 안창호, 인촌 김성수, 헬렌케라, 유일한 등이 보인다. 양정고보에서 수학할 때 담임선생 김교신을 평생 동안 사모하기를 마지않았다. 생신 일백주년 기념행사까지 열었다. 이것만 보아도 류달영은 유호덕을 실천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맹자孟子는 벗을 사귈 때 그 사람의 속알(德)을 보고 사귀어야지 그 사람의 문벌이나 지위나 재물을 끼고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 사람의 속알을 벗하라(友其德)"(맹자, 만장하편)는 것이다. 류달영은 말하였다. "사람에게서 돈과 지위와 학벌 같은 눈을 속이는 모든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바라볼 때 그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가진 게 없는 이 사람을 각별히 아껴준 것도 그 고귀한 호덕정신이 드러난 것이다.

다섯째는 고종명考終命의 복이다. 종명終命은 생명의 마침 곧 죽음을 뜻한다. 그러니 고종명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무슨 엉뚱한 복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내 사전에는 죽음이란 낱말은 없다는 듯이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큰 복으로 안다. 그런데 오복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들어있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예수 석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죽는 이 몸이 참나'가 아니라 '전체인 하느님이 참나' 임을 깨달은 사람이다. "죽음을 생각하여 언제 떠나도 미련이 없도록 준비와 각오를 하면 좀더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 아픔이 없으면 죽음 생각을 안 하게 된다."(류영모, 『다석어록』) 류달영도 고종명을 잘하였다. 시인 롱펠로는 그의 대표적인 시 「인생의 찬미」에서 무덤은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점이라 읊었다. 죽음을 인생의 출발점으로 믿는 삶은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인가!(류달영, 『인생의 열쇠꾸러미』) 류달영이 33살 때 쓴 시에 "반짝하는 삶이어니/ 부지런히 사올 것이/ 단 한번의 삶이어니/ 의젓이 사올 것이/ 영원한 삶이옵도록/ 참되이 사올 것이"라 읊었다. 이 시구도 고종명에서 나온 생각임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 고종명을 잘한 이의 한 사람인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죽음 맛을 좀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죽음 맛보기가 싫다는 게 뭔가? 이 몸은 땅에 내던져지고 얼은 위로 들려야 한다. 땅에서 온 몸은 죽어 땅에 떨어지고, 위에서 온 얼은 들리어 하느님께로 올리운다."(류영모, 『다석어록』)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입만 열면 행복타령이다. 그러나 육체적인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는 톨스토이처럼 50살이 못되어 우울증에 걸리게 될 뿐이다. 톨스토이는 말하였다. "동물적 개성의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 인간생활의 철칙이다."(톨스토이, 『인생론』) 류달영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에서 삶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였다. 옛 사람이 말한 오복은 정신적인 행복이 참 행복임을 가르쳐 준다.

류달영은 내가 날마다 때마다 들여다보아야 할 인생의 거울이다.